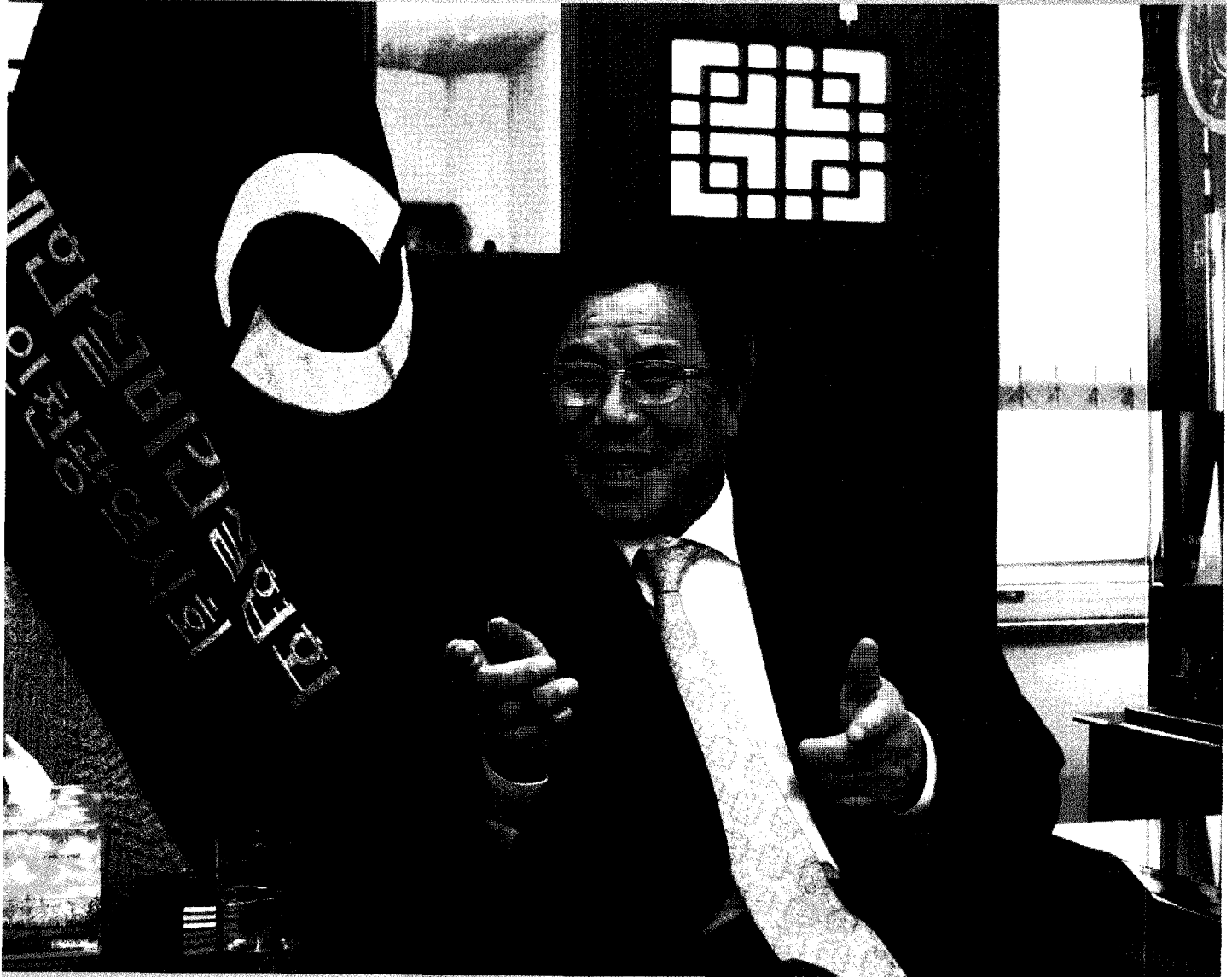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1조원 목표 달성에 ‘온 힘’

〈기성실적〉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최호선** 회장



제8대 시·도회장이 새롭게 구성됨에 따라 전국 시·도회는 시·도회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본지는 향후 3년간 시·도회를 이끌어갈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에는 카리스마 넘치는 최호선 인천광역시회 회장을 만나보았다.[편집자주]

제8대 회장으로 선임된 소감과 각오

지난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회원사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청라지역 개발, 도시재생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영종·용유 등 도서지역 개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심 전체가 공사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인천지역 건설경기는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 업체에겐 화중지병(畫中之餅)과 같아서, 그야말로 남의 집 찬치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를 외면한 채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사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 해도 전체 하도급 물량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천사회 회원사들이 지난해 6,300억원 대의 기성실적을 올린 것은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며, 전 회원사의 노고에 회장으로로서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도약·성장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사회 회원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수주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올해 1조원 대의 기성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인천사회 회원사 모두가 합심하여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주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

첫째,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지금 인천사회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 지지부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취소 또는 지연, 그리고 늘어만 가는 PF사업 부실 및 최저가공사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간 지역경제 보호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천사회는 인천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및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정착

인천사회는 지난 몇 년간 힘들게 뿌리를 내린 분리발주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얻기 위해, 분리발주 확대 노력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최소한 3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옥외 기계설비공사뿐만 아니라 400~500억원 대의 옥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사회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16개 공구에도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교육청 및 산하기관 역시 그동안 보여왔던 우리 업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겸업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가 기계설비에도 도입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최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지양

물가상승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움직임, 과다경쟁(덤핑수주)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에 있어 인체의 혈관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착공에서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최저가낙찰제와 무조건적인 덤핑수주는 곧바로 공사의 품질 하락으로 연결되며, 우리 업계의 신뢰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한 번 무너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이를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시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에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수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빛째, 본회와 연계하여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적극 동참

지금 우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은 우리 기계설비업계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점 사업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회와 시·도회가 연계하여 방안 모색에 전념해야 하며 적극적인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회 설립 목적인 '회원의 권익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인천시회는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우회적이거나 조금 늦춰진다 해도 업계 발전을 위한 의지

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적극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와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역동적이며 날이 발전하는 인천시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천지역 회원사에게 당부 말씀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이어받아 어깨가 무겁지만 저는 지금의 난관을 호기로 역전시키기 위해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의 힘을 결집시키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건설위기의 모범적인 극복과 향상된 협회 위상등을 기반으로 '일류 협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함 없이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는 인천시회를 만들어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저의 정책 방향에 호응해 주시리라 믿고 서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단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회원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래의 곳은 날씨로 현장 공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힘 내시고, 사업의 번창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천광역시회 최호선 회장은?

- 학력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제2기 가천CEO리더십 과정 수료
- 주요경력
 - 현대중공업(주)(1980)
 - 미국 FLOR COMPANY(1982)
 - 미국 SUN OIL COMPANY(1989)
 - 정호기업 설립(1989)
 - (주)정호기업 대표이사 취임 (1993)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2008 ~ 2011.02)
 - 제7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부회장(2008~2010)
 - 現 제8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 포 상
 - 인천광역시장 표창(1999)
 -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2006)
 -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2010)
 -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2010)